

## 베트남 전쟁시기 (1950년~1975년) 북한 - 북베트남의 관계:

###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도미엔 (Do Thanh Thao Mien)

#### I. 머리말

#### II. 베트남 전쟁시기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전개과정

1. 1950년대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의 전개과정
2. 1960년대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의 전개과정
3. 1970년대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의 변화
4. 북한·북베트남 관계와 변수로서의 중국

#### III. 맺음말

#### I. 머리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는 베트남전쟁이다. 베트남전은 국제관계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역사의 분기점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국제체제 내의 권력구조 변화를 야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베트남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사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과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남한과 남베트남 (베트남공화국), 북한과 북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서로 수교를 시작했다. 남한과 남베트남의 관계는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부터 형성되었고, 같은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 역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반공국가인 남베트남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60년대 중반부터 군사를 파병하였기 때문에 베트남이 “강 건너 불처럼” 무관심의 대상일 수 없었다. 또한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조국통일을 원하고 있었던 북한에게도 베트남전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 시기 남북한관계의 복잡성은 베트남 전쟁에 반영되었다. 베트남전쟁의 과정에서 남한은 베트남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북한 또한 지원병을 파견하였다. 베트남전 과정에서 주목할 사실은, 남한군이 북한으로 이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사적으로는, 1975년 사이공 함락 이후 남한 주베트남대사관 경제공사 이대용이 북베트남 정부에 체포되어 이후 북한이 이대용 공사를 납북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베트남 전쟁, 또한 남한-남베트남의 관계, 특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북베트남의 관계를 살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지금까지 북-베 관계의 전개 과정, 또한 북-베관계와 베트남 전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다. 이는 1차 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자, 북한-베트남 자료의 부재로 인한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을 각 시기별로 나눠 북한 - 북베트남 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베트남 전쟁시기 북한 · 북베트남 관계의 전개과정

### 1. 1950년대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의 전개과정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교류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전개된 정치적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베트남전쟁의 전개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호찌민은 하노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영국군을 동원하여 사이공(현재의 호찌민 시)에서 발생한 봉기를 진압해 식민권력을 회복하고자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다. 한반도에서는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에 각각 남북에서 독자적인 정권이 수립되었고, 이후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이 계속되었다. 한국전쟁의 종결 즈음,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제1차 베트남전쟁, 1946.12-1954.7)이 끝났다. 베-프 전쟁 당시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식민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베트남사람들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호찌민 (Hồ Chí Minh)의 군대는 1954년 프랑스와의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냥 철수하지 않고 베트남에서의 식민권력을 미국에 이양하고자 했으며, 베트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1954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네바회담에서 베트남문제는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으로 베트남을 분단하고, 2년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총선거는 남베트남의 거부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고, 남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단독선거를 거쳐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반면 북베트남은 호찌민의 지도하에 소련 방식의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갔다. 남베트남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지엠 대통령은 통일운동세력을 공산당으로 몰아세우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한편 북베트남의 호찌민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의거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950년대의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전개된 정치적 상황의 시기적 전제는 첫째, 한국전쟁 시작 및 종결, 둘째,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전개 및 종결, 마지막으로 제2차 베트남전쟁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바로 이 때 남한과 남베트남, 북한과 북베트남이 서로 수교를 시작한 것이다. 남한과 남베트남의 관계는 1950대 초

반부터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상대국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여부를 놓고 교류를 시작해 1956년 6월 외교관계를 확립하였다.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1950년 초반 북한은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승인했다. 1950년대 북한·북베트남관계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공동연대 형성 과정에서, 1951년 북베트남과 북한의 첫 접촉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전쟁이 아직 치열했던 시기인 1951년, 베트남 민족통일전선 전국위원회 부주석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은 북한을 방문했다.<sup>1</sup> 그는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고, 한 달 동안 머물며 38선이 위치한 지역까지 시찰했다.

북한과 북베트남의 공동연대의식은 이후 더 확장되었다. 북베트남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을 똑같이 “반침략제국 항쟁”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북한이 미군을 총격(銃擊)한 것은 바로 베트남이 미군과 프랑스군을 총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베트남이 미국과 프랑스군을 총격한 것은 바로 북한이 미군을 총격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sup>2</sup> 초기 한반도에 대한 북베트남의 관심은 한국전쟁이 베트남에 어떠한 경험으로 남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1950년대 초반 북베트남·북한관계의 시작이 공동연대의식에서 출발한 반(反)제국주의 의식이었던 것은 당연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양국은 문화교류를 통해 사회주의 의식을 점차 공고히 하였다.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으로 전쟁이 끝나 하노이가 프랑스에서부터 독립이 된 이후, 1955년 8월 7일 백남운<sup>3</sup>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인민 대표단’과 인민 군대 예술단은 처음으로 하노이를 방문하였다.<sup>4</sup> 195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화교류는 1956년 공산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1956년 11월 북한에서 파견한 ‘조선 문화 대표단’이 북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조선 문화 대표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다양한 문

---

<sup>1</sup> “Bản sao công văn báo cáo hoạt động của Phái đoàn nhân dân Việt Nam thăm Trung Quốc và Triều Tiên”, Hồ sơ 1482, Mục lục 1, Fond Phủ từ tướng, Trung Tâm Lưu Trữ QG III [“Copy of Report of People's Delegation of Vietnam's visit to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Vietnam National Archive III (VNAIII), Governmental Office Fond (GDF), Document No. 1482, Index No. 1]

<sup>2</sup> Hoàng Quốc Việt, Hoài Thanh,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uất bản, 1952, p.5 [호앙 꾸옥 비엣, 화이타인, 『북조선에 있는 한 달』,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1952), 5쪽]

<sup>3</sup> 북한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원시·고대·중세의 사회경제에 관한 경제사적 연구에 몰두하여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한국의 경제사학 발전에 선구자적 구실을 하였다. 월북 후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9월 교육상, 1952년 과학원 원장, 1956년 민주과학협회 위원장, 1961년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1969년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거쳐 1974년 조국전선 의장을 지냈으며, 1979년 사망하였다.

<sup>4</sup> 『Những ngày ở Hà nội của đoàn đại biểu Triều Tiên』, Sở văn hoá Hà Nội, 1955, p.3. [하노이 북지문화국, 『조선대표단이 하노이에 체류하는 시간』, 1955년, 3 쪽.]

화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북한과 북베트남의 유대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sup>5</sup>

이러한 상황에서, 호찌민은 1957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대미항쟁에 힘쓰기 위해 북한-북베트남 연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방문시 평양인민들의 환영회에서 호찌민은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 미 제국은 조선 및 베트남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군사기지를 증가하며 긴장상태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미 제국의 전쟁도발 음모에 당면했기에, 선두에 선 소련과 중국, 그리고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은 인류의 평화문제와 사회주의 업적에 책임을 인식하여 단결심을 강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sup>6</sup> 이어서 1958년에는 김일성이 하노이를 방문해, 사회주의 국가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주장함으로써 경제, 과학,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아울러 쌍방 간의 교류와 친선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958년 10월에 양국은 과학기술합작 협정을 조인하였고, 북한은 과학기술 전문가를 베트남으로 파견하였다.<sup>7</sup>

1950년대 후반 미국이 남베트남에 원조와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북·베 공동연대의식은 1950년대 전반의 반제국주의 의식에서 반미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

## 2. 1960년대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의 전개과정

1950년대의 연대의식은 1960년대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기초로 작용했다. 베트남 전쟁의 상황에 따라 두 국가의 관계는 진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과 남한의 베트남 파병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964년 11월 28일 하노이에서 주베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대사 마동산은 북베트남에 수리(水利)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sup>8</sup> 1964년 12월초 북베트남을 방문한 김창봉 민족보위상은 12월 3일 호찌민 주석과 회담했으며, 북베트남군 방공부대와 해군부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미제의 무력 침략과 전쟁소동은 월남 영토에 대한 침해이며 월남 인민의 신성한 자주권 유린이

<sup>5</sup> 윤대영, 「1950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87 (2013), 213쪽.

<sup>6</sup> "Diễn văn của Chủ tịch Hồ Chí Minh đọc trong buổi mít tinh chào mừng nhân dân Bình Nhưỡng nhân dịp đoàn Việt Nam thăm nước CHDCND Triều Tiên", Hồ sơ 649, Fond Quốc Hội, Mục lục1, TT LT QG III. ["President Ho Chi Minh's speech to salute North Korean people during Vietnamese delegation's visit to the DPRK", VNA III, National Assembly Fond (이하 NAF로 약칭), Document No. 649, Index No. 1].

<sup>7</sup> "Báo cáo của UBKHNN về quan hệ văn hoá, kinh tế giữa Việt Nam và CHDCND Triều Tiên 1955-1965", Hồ sơ số 8099, Mục lục số 1, PTT, TTLTQG III. ["Report by National Planning Board on the cultur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the DPRK 1955-1965", VNA III, GDF, Document No. 8099, Index No. 1]

<sup>8</sup> 『Bảo nhân dân』, (29.11.1964). [『베트남 인민신문』 (1964.11.29).]

며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뒤 한국과 베트남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sup>9</sup>

이처럼 196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의 우호적 변화는 1964년 베트남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남한의 베트남전쟁 파병과 연결되었다. 북한은 미국을 “조선 인민과 베트남 인민의 공동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sup>10</sup>, 이후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서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 공세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뒤에 발생한 통킹 만 사건<sup>11</sup>을 계기로 북한은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다.<sup>12</sup> 나아가 한국 정부가 비전투부대의 파병 결정을 발표하자 북한은 한국군의 파병이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엄중한 침략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도발행동이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미제와 박정희 도당의 이 무분별한 범죄적 행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그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sup>13</sup>

1965년 7월 한국 정부가 1개 사단의 파병을 결정하자, 북한은 남한이 몇 푼의달러를 벌기 위해 한국군을 미군의 ‘탄알받이’로 보낸다고 비난하면서 “파병되는 남한군의 규모가 ‘사단이든 군단이든, 증가되는 병력에 상응하는 규모의 남베트남 해방군과인민무장대원들을 무장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제공’ 할것을 선언했다.<sup>14</sup> 또한 같은 날 김일성은 북한이 “최후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것이라는 취지의 전문을 응웬 후어 터(Nguyễn Hữu Thọ)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에게 보냈으며, 12일 평양에서는 북한이 북베트남에 경제적·기술적 원조를제공하는 것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sup>15</sup>

1966년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지원은 계속되어 3월 9일, 북베트남에게 무상으

<sup>9</sup> 『로동신문』 (1964.12.22); 『Báo nhân dân』, (18.12.1964). [『베트남 인민신문』 (1964.12.18).]

<sup>10</sup> 『로동신문』 (1964.07.19); 『Báo nhân dân』, (28.11.1964). [『베트남 인민신문』 (1964.11.28).]

<sup>11</sup> 미국이 베트남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강화한 계기로 삼은 사건이다. 미국 측에 따르면,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이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구축함(매독스 호 Destroyer US S Maddox DD-731)을 향해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미구축함은 즉각 대응하여 1척을 격침하고 2척에는 타격을 가하였다. 주변에서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항공모함(타이콘디거 호 USS Ticonderoga CV-14)도 가세하여 함재기들이 공세를 펼쳤고 함대 구축함(터너조이 호 USS Turner Joy DD-951)도 공격에 가세하였다.

<sup>12</sup> 조진구, 「중소대립-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亞細亞研究: Vol.46 No.4 (2003), 230 쪽.

<sup>13</sup> 『로동 신문』 (1965.01.09).

<sup>14</sup> “H/s về đoàn ĐB Quốc Hội đi thăm các nước: Trung Quốc, Triều Tiên, Mông cô Liên Xô từ ngày 11.7 đến ngày 03.9.1965. Tập 2: Đoàn đi thăm nước CHDCND Triều Tiên 25.7-03.8.1965”,Fond Quốc Hội, Mục lục số 1, Hồ sơ số 1626, TTLTQG III. [“Documents of Viet Nam National Assembly's visit to China, the DPRK, Mongolia, the Soviet, from July 11 to September 3 1965. Volume II: Delegation's visit to the DPRK from July 25 to August 3 1965”, VNA III, NAF, Document No. 1626, Index No. 1]

<sup>15</sup> 『로동신문』 (1965.07.19); 『베트남 인민신문』 (1965.05.23).

로 1966년 경제적·기술적 원조의 제공과 양국 간 상품교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나아가 10월의 제2차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미국을 “조선 인민과 베트남 인민의 공동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베트남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지원병을 파견하기까지 모든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sup>16</sup> 북한은 베트남에 대하여 언제든지 지원병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베트남의 지원군 파병 요구는 없었다. 베트남전 북한의 파병 관련 정보는 대부분 한국 신문이 밝혀냈다. 한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주로 미국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가 이달초 발간한 ‘북한 국제문서 연구사업(NKIDP)’ 보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sup>17</sup> 해당 프로젝트 보고서 중에는 MERLE L. PRIBBENOW<sup>18</sup>라는 연구자가 작성한 ‘북한 국제문서 연구사업’ 라는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그는 최근 공식발표된 베트남 자료를 번역해 기반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발표된 베트남 자료를 통해, 어떠한 사실을 추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먼저 북한의 지원병에 관해, 미국의 북베트남 공격 시작 이후 1966년 10월 20일부터 1969년까지 북한은 작전경험을 얻기 위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하였다. 파견한 군인은 총 384명이었고 그중에 전투기 조종사는 96명이었다. 그외에 심리전 전문가 및 방송전문가는 35명이 파견되었다.<sup>19</sup> 북베트남의 공군 93중대가 북한 공군을 관리했으며, 이 93중대의 점령 지역은 북베트남의 Bac Giang(박장)성에 위치했다. 1966년 12월 15일부터 북한군들은 전투에 참여했으며 미그기 17C (MIG-17C)조종을 맡았다. 공군 파병 기간 동안 북한 공군은 미국 전투기 26대를 사격했고, 미 공군 7명을 생포하였다. 1968년 12월까지 베트남에 파병된 북한 병사는 모두 159명이었고 5번에 걸친 병사 교체가 있었다 (전투기 조종사는 총 31명). 전사자는 총 14명으로, 이들은 베트남 Bac Giang지역에 묻혀졌다.<sup>20</sup> 2002년 6월 북한 정부는 이들의 유골을 북한으로 옮겼지만, 현재도 그들의 묘소는 남아 있다.<sup>21</sup> 베트남 정부는 최근까지 북한군의 베트남 파병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래 발행한 역사

<sup>16</sup> 『Báo nhân dân』, (20.07.1966), (10.10.1966). [『베트남 인민신문』, (1966.07.20; 1966.10.10).]

<sup>17</sup> MERLE L. PRIBBENOW,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이하 *NKIDP*로 약칭). (<http://www.wilsoncenter.org/publication/nkidp-e-dossier-no-2-north-korean-pilots-the-skies-over-vietnam>)

<sup>18</sup> MERLE L. PRIBBENOW이 베트남 전쟁 시기에 사이공에서 근무시간 5년을 포함해 1968~1995 CIA의 언어 임원, 운영 책임자 및 참모 장교로 재직했다.

<sup>19</sup> Tài liệu lưu trữ, Trung tâm lưu trữ Bộ Quốc phòng, phòng Bộ Quốc phòng, hồ sơ 1119. [Archive Documents, Vietnam Ministry of Defense's Archive, Ministry of Defense Fond, Document No. 1119]

<sup>20</sup> 『TUỔI TRẺ CUỐI TUẦN』, (28.08.2008). [『베트남의 “주말 청년” 신문』, (2008.08.28). 북한공군과 함께 전투하는 Phan Khắc Hy 베트남공군소장과 면접한 내용(<http://tuoitre.vn/Tuoi-tre-cuoi-tuan/Tuoi-tre-cuoi-tuan/275879/Ve-%E2%80%9C14-chien-binh-Trieu-Tien-tren-bau-troi-Viet-Nam%E2%80%9D.html>)

<sup>21</sup> Bac Giang뉴스, (2011.07.22) (<http://bacgiang.net/tin-tong-hop/chuyen-o-nghia-trang-quoc-te-la-nhat-viet-nam.html>)

서에는 북한 정부가 작전경험을 얻기 위해 북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맺어 1967년부터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한 사실을 기술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sup>22</sup>

그 외에 북한은 심리전 공작 전문가들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심리전의 대상은 바로 남베트남전선에 있는 한국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베트남 정치국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남한 병사들이 총을 버리고 전쟁에 떠나서 귀국하는 것을 설득하는 심리전을 주로 펼쳤는데, 문제는 그 당시 베트남에서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 방면의 전문가가 베트남에 파견되어 방송 편집-녹음 작업 등을 도와줬다. 그 당시 방송 담당자인 응웬 닛 디엔(Nguyễn Nhật Tiên) 대령은 “북조선 전문가의 도움으로 방송의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sup>23</sup>

남한 국방부는 베트남전 당시 실종자로 분류된 남한참전군인은 안학수 하사와 박성렬 병장,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등 총 4명으로, 1명은 월북, 2명은 납북, 1명은 생사불명이라고 분류한 기록이 있다. 이 중 안학수, 박성렬과 같은 경우 처음에 ‘자진월북’으로 관리하다가 최근에는 베트남의 포로가 된 뒤 북한 군사고문단원들에 의해 납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납북-국군포로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김인식 대위는 북한방송 등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준택 하사는 행방불명자로 분류하고 있다).<sup>24</sup> 안학수 하사의 경우, 1967년 3월 27일 평양에서 환영식이 열렸다. 평양인민 2만 여명과 북한의 인민위원회 부의장 및 베트남대사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위원회<sup>25</sup> 대표자가 참석한 이 환영식에서 안 하사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비난하면서 이 전쟁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남조선군에게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미군에게 총을 쏘아서 남베트남민족해방군으로 건너가 조국 북조선에 귀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6</sup> 박성렬 병장의 경우, 하노이에서 1967년 4월 24일 총을 버리고 항복한 박 병장을 주베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대사에게 인계했다. 이러한 인도정책으로 박성렬 병장은 도움을 받았고 전쟁의 희생위험에서 벗어나 조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인도정책과 베트남인민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시했다.<sup>27</sup> 이처럼 남한군이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항복한 것은 당시 북베트남과 북한이 협

<sup>22</sup> 『Lịch sử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Tập V: tổng tiến công và nổi dậy 1968』 Viện nghiên cứu lịch sử,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2001, p.271. [베트남군사역사연구원, 『항미조국통일전쟁역사, 1954-1975, 제5부: 1968년 총공격 및 봉기』, (베트남: 국가정치 출판사, 2001), 271쪽.]

<sup>23</sup> 『Báo nhân dân』, (28.04.2010). [『베트남 인민신문』 (2010.04.28).]; 『항미조국통일전쟁역사』, 271쪽.

<sup>24</sup> 오마이뉴스, 2009/09/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_0122745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_01227456) )

<sup>25</sup> 베트남 남쪽에서 실제로 혁명운동을 하고 있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는 1969년에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PRG)가 수립되었다.

<sup>26</sup> 『Báo nhân dân』, (30.03.1967). [『베트남 인민신문』 (1967.03.30).]

<sup>27</sup> 『Báo Quân đội nhân dân』, (25.04.1967). [『베트남 인민군대 신문』 (1967.04.25).]

력한 심리전의 결과라고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의 원칙을 지켜, 북베트남의 편에 서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이 가운데 남한혁명이 현실적인 목표로 부상했다.<sup>28</sup> 북한 정부가 오직 북베트남 정부와만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이하 남민전)와도 관계를 맺었는데, 남베트남에서 혁명운동을 진행하던 남민전은 1966년 6월부터 북한으로 상주대표단을 파견하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sup>29</sup> 북한이 남민전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남조선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택한 전략이 남한 내에서 "혁명운동"을 양성하고, 베트남 전쟁과 같은 게릴라투쟁을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민전, 혹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대표의 북한 상주 역시 '남조선혁명'에 도움이 될 것이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1966년 10월 열린 제2차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북한은 남조선혁명 및 조국통일의 임무를 더욱 강조했다. 여기서 김일성은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장문의 보고를 했다. 이 보고에서 김일성은 "현재 단계에서 조선로동당의 가장 큰 임무는 조국통일 및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라고 강조했다.<sup>30</sup> 이를 위해 남조선에서 혁명역량 강화 및 혁명투쟁발전이 필요하며 북조선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적극적인 강화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두 번째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했던 1966년 가을부터 북한은 무장 게릴라를 한국으로 침투시키는 등 대남 공세를 강화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베트남이라는 교과서를 보고 한국에서의 게릴라전에 대비한 기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sup>31</sup>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국이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했던 196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7-68년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1968년 1월에 잇달아 발생했던 청와대습격 미수사건(1.21사태)과 1월 23일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up>32</sup> 1월 24일 CIA의 헬름즈 국장은 백악관에서의 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동기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군의 베트남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을 골탕먹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백악관에서 열린 오찬 회의에서 미국 정부 지도자들은 북한의 동기가 미국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베트남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희망일 수도 있음을 말하였다.<sup>33</sup>

<sup>28</sup>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남기정 옮김, (창비, 2014), 155 쪽

<sup>29</sup> 『Báo Quân đội nhân dân』, (30.06.1966). [『베트남인민신문』, (1966.06.30.)]

<sup>30</sup> 『Báo nhân dân』, (10.13.1966). [『베트남 인민 신문』 (1966.10.13.)]

<sup>31</sup> *FRUS*, 1964-1968, vol.29, Part 1 Korea, 256; 조진구, 229 쪽에서 재인용.

<sup>32</sup> 조진구, 앞의 논문, 249 쪽.

<sup>33</sup> CIA, "Pueblo Sitrep," January 24,, 1968, NSF, Country Files, Asia and Pacific, Box 257, LBJ Library; Memo, "Notes of the President's Luncheon Meeting," January 25, 1968, *FRUS*, p.469; 정성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한반도에서 위기가 한창 치솟고 있던 1968년 1월 30일은 음력으로 1월1일, 즉 설날(구정)이었다. 한국과 비슷한 베트남도 설날(Tet)은 큰 명절이다. 30일 설날, 새벽이 밝아오자 수도 사이공을 비롯한 남베트남 주요 도시에 게릴라들이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던 게릴라들이 명절날 도시를 일제히 공격한 것이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군 기지도 공격을 받았다. 이른바 ‘베트남 Tet공세’로 불리는 이 전투는 10여일쯤 지나서 대부분 진정되었다.<sup>34</sup> 북베트남에서 게릴라전이 아닌 총공격이라고 부르는 이 공세는 큰 성공을 얻지는 못했으나 미국 국민과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쟁의 지지를 크게 감퇴시켰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는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의 와중에 북한과 북베트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기 어렵다. 북한의 움직임은 Tet 공세와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베트남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 북한은 자신들의 작전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까지 제기되었다.<sup>35</sup> 북베트남 언론은 1.21사태에 대해 다루지 않은 반면,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베트남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 사건이 북한의 성공이라고 높이 평가했다.<sup>36</sup> “항미 공동전선에서의 조선과 베트남 형제국의 전공 및 승리는 서로 응원하고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조선 혁명’이란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었고 이는 당연히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병할 수 없었다. 그 이상의 전투부대 파병은 한반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8년 중반으로 예정되었던 추가 파병은 실행되지 못했다.<sup>37</sup> 이처럼 베트남 전쟁의 전개는 1960년대 북-베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었으며, 동시에 북한의 대남정책이 공격적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결국 북한의 대남도발은 남한정부의 대북 불신감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당과 군에서 강경한 대남혁명노선을 주도했던 빨치산 출신 장군들의 숙청으로 이어졌다. 또한 베트남 파병과 한일국교정상화 등을 계기로 남한경제가 고도로 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남북한 경제가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다.<sup>38</sup>

---

윤,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원인에 대한 연구」, 영남국제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2008. 12), 225쪽에서 재인용.

<sup>34</sup> 마이클 매클리어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유경찬 옮김, (을유문화사, 2002), 359쪽.

<sup>35</sup>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169 쪽.

<sup>36</sup> 북한의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해서 북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 “베트남 인민들은 최근의 남베트남 혁명에서의 승리 (1968년 1월 “베트남 Tet공세”와 같은 남베트남 혁명의 승리라는 뜻)로 아주 기쁜 분위기와 함께 조선에서 미국의 새로운 실패로 베트남인민은 만족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을 엄히 징계한 조선인민군들의 의견과 완전히 동의하는 것이다”. 『Báo Quân đội nhân dân』, (02.03.1968). [『베트남 인민군대 신문』 (1968.03.02).]

<sup>37</sup>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80, (2007.8), 300쪽.

<sup>38</sup> 조진구, 앞의 논문, 254 쪽.

### 3. 1970년대 북한·북베트남의 관계의 변화

1970년대에 들어서며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는 느슨해졌다. 우선 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경제지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감소했다. 북한의 대베트남 경제지원은 1969년부터 감소되었고 1970년대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1973년 베트남 평화 협정 이후, 북한정부는 베트남의 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1973년에 북한의 베트남 지원 금액은 1백 1십만 루블이었는데, 이는 1965년의 1천 2백만 루블에비하면 9%에 불과했고 1972년의 2백만 루블 금액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었다.<sup>39</sup> 1973년에 팜 반 동(Phạm Văn Đồng) 북베트남 수상은 김일성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1973년 북한의 지원 금액은 여전히 최저인 1백 1십만 루블이었다.<sup>40</sup> 북한 정부의 베트남 무상지원 역시 1974년부터 중단되었다. 북베트남정부는 북한의 지원 감소를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베트남정부는 결정적으로,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항미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관점의 변화가 원조액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sup>41</sup>

< 표 1 > 연도별 북한의 베트남 무상 지원금액

연도	금액 (단위: 백만 루블)
1955-1964	없음
1965	12
1966	7
1967	5.3
1968	5.7
<b>4년의 합계</b>	<b>30</b>
1969	4.7
1970	1.9

<sup>39</sup> “Tình hình tổng quát về Quan hệ Kinh tế, Kỹ thuật-Khoa học giữa Việt Nam -CHDCND TT 1955-1973”. Hồ sơ 9235, Mục lục 3, Fond PTT, TTLTQG III [“Brief on the Economic, Technical, Scientific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the DPRK, 1955-1973”, VNAlII, GOF, Document No. 9235, Index No. 3]

<sup>40</sup> “Công hàm của Thủ tướng Phạm Văn Đồng gửi Thủ tướng Kim Nhật Thành yêu cầu CHDCND Triều Tiên viện trợ kinh tế, quân sự cho Việt Nam năm 1973”, Hồ sơ số: 9233, Mục lục số 3 Fond PTT, TTLTQG III [“Diplomatic notes from Prime Minister Phạm Van Dong to Premier Kim Il-sung requesting economic military aid for Vietnam, 1973”, VNAlII, GOF, Document No. 9233, Index No. 3]

<sup>41</sup> 각주 39)번과 동일.

1971	2.1
1972	2
<b>4년의 합계</b>	<b>10.7</b>
1973	1.1
1974 이후	없음
<b>총계</b>	<b>41.8</b>

출전: Vietnam National Archive III, Governmental Office Fond, Document No. 92 35, Index No. 3.

197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베트남의 입장 역시 비판적이었다. 베트남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대했다. “남북공동성명은 긴장완화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남한 혁명세력에게는 해로운 것이다”라고 하며, 그 이유를 “혁명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다.<sup>42</sup> 또한 주북한 베트남 대사 레동(Lê Đông)은 1973년에 북한의 통일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남한정세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성이 제시하는 고려연방제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sup>43</sup> 북베트남정부는 무력통일전략을 베트남전쟁 시작부터 종전때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자국의 통일정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한 것이었다.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되자마자 김일성과 정무원 총리 김일동은 남민전 및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에게 축전을 보냈다. 5월 3일 평양에서는 5만 명이 모인 “베트남 통일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다.<sup>44</sup> 『로동신문』의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남베트남의 붕괴, 혹은 베트남 통일은 ‘영웅적 투쟁의 빛나는 결실, 위대한 승리’로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에게 1975년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포함된 인도차이나 인민의 승리와 함께 세계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승리와 영광의 한 해였다. 또한 『로동신문』은 “베트남전 종결의 가장 큰 의의는 초강국이 타민족들을 탄압하는 시대가 이미 끝장났다는 사실을 보여준 데 있다는 것”이라고 평

<sup>42</sup> “Telegram from Hungary Embassy in Pyongya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l. 10. 1972, Christian F. Ostermann and James F. Person eds.,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 Document Reader ), *NKIDP*,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2010,872면;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259쪽에서 재인용.

<sup>43</sup> “Conversation with the Ambassador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October 31, 1973, *Inter-Korean Relations*, Document Collections, *NKIDP*,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이하 *CWIHP*로 약칭).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77>)

<sup>44</sup> 『로동신문』, (1975.05.03.).

가했다.<sup>45</sup>

하지만 북한정부는 북한방송에서 1975년 베트남 통일을 언급하게 해달라는 베트남 대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정부는 북한 언론에 보도된 베트남통일 관련 보도에 대해 양과 질 모두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베트남 인민들의 성공, 승리, 그리고 통일이 북한에서 폭넓게 이야기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평양 베트남대사는 “북한정부가 펼치는 통일정책의 정확성에 대해 인민들이 보일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과 의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sup>46</sup> 이처럼 베트남정부와 북한정부는 베트남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통일방법을 두고 대립하였고, 북한 지도부는 베트남과 같은 무력통일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려 했다. 이는 남한과 남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했기 때문인데다, 통일에 대한 양국(북한-북베트남)의 의지 및 보유한 역량, 능력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다룬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들은 기본적으로 1975년까지 김일성이 북베트남의 무력통일방식에 고무되어 남한에 혁명적 상황을 조성했으며, 무력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sup>47</sup> 그러나 기존의 시각들은 베트남 전쟁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정부는 1970년대의 전반 베트남전쟁에서 나타난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추구하는 제스처, 또한 비동맹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등 외교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은 1973년 남한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1975년 국제무대에서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청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대외적으로 주장했지만, 정작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은 1973년 1월 27일에 체결된 베트남 평화협정 이후에 있었다.<sup>48</sup> 북한은 한반도 통일방침에 대해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를 얻으려 했다. 위와 같은 북한의 통일 정책은 베트남전쟁에서 베트남정부가 주창했던 통일 정책과 일부 유사한 것이었으며, 이는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sup>49</sup>

북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표방한 정책은 “외교적 전선, 군사적 전선, 정치적 전선”을 결합한 것이다. 북베트남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으며, 미군은 베트남

---

<sup>45</sup> 『로동신문』, (1975.05.02).

<sup>46</sup>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DPRK, “Note about a Conversation with the Ambassador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Comrade Le Quang Khai, on 5 May 1976”, May 06, 1976, *China-North Korea Relations*, Document Collections. *CWIHP, NKIDP*.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286>)

<sup>47</sup>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 2006), 145 쪽;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 (서울: 한울, 2005), 171 쪽.

<sup>48</sup>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대화 백서』, (서울 : 남북조절위원회, 1975), 48 쪽.

<sup>49</sup>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 48 집, 2014.06.30, 참조.

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즉 베트남이 취한 3가지 협상전략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 전선’이 베트남과 달랐다. 미국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루지 않았던 북한은 단지 전쟁발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와 달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양자관계를 맺을 만한 고유한 이해관계 자체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sup>50</sup>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 전쟁 중이었으며, 때문에 북베트남은 타협 협상을 전개할 대상으로 취급되었지만 한반도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더해, 베트남 전쟁 시기 평화협정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했으나 양자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협상은 계속 미뤄졌다. 또한, 협상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 북베트남은 여러 전략을 실행했고, 무력공세도 마다하지 않았다. 1968년의 ‘Tet 공세’와 1972년 12월 북베트남 폭격에 대한 베트남인의 굳은 저항 등은 미군을 철수시켰고, 친미주의적이었던 남베트남 티우 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이나 북한과 같은 작은 국가가 미국과 협상한다는 것이 단순한 언사 혹은 서한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은 대미협상에 있어 베트남만큼 다각적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북한정부는 무력통일의도가 없다고 하면서 통일의 3대원칙과 5대강령을 강조했다.<sup>51</sup> 이러한 통일원칙은 1972년부터 선포되었던 것이었다. 베트남전 종결 이후에도 북한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통일을 위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침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4. 북한·북베트남 관계와 변수로서의 중국

중국은 북베트남과 북한의 관계 형성 및 전개에 있어 중요한 변수였다. 베트남 전쟁기 북한·북베트남 관계를 분석하려면 북한·북베트남·중국의 삼각관계를 반드시 살펴야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을 살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베트남과 중국의 양면적 관계는 ‘우호와 갈등’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다.<sup>52</sup> 베트남 외교부에서 1979년 10월 4일 발행한 <베트남-중국 30년 관계의 진실 (백서 1979)>에 따르면, 1970년대는 북베트남과 중국의 관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그 동안 밀고 당겼던 길항관계의 역사에 기초해, 중·베 관계는 베트남 전쟁이 발발한 1960년대에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968년 북베트남의 ‘Tet 공세’를 비판했고, 경화기·탄약·후방장비만을 지원하며 북베트남이 전쟁을 무력으로 조기종결하는 것을 반대했다. 게다가 중국의 북베트남 원조는 1968년을 기점으로 대폭 줄었다.<sup>53</sup> 또한 1968년 북베트남이

<sup>50</sup>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파주: 창비, 2012), 368-369 쪽.

<sup>51</sup> 『로동신문』, (1975.06.25).

<sup>52</sup>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파주: 창비, 2012), 283쪽.

<sup>53</sup> 『Sự thật 30 năm Quan hệ Việt-Trung (Sách trắng 1979)』, Bộ ngoại giao nước CHXHCNVN, p.40-45. [『베트남-중국 30년 관계의 진실 (백서 1979)』 (이하 『백서 1979』로 약칭), 베트남외교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갔을 때 중국이 이를 반대했다는 점도 양국의 갈등요소 중 하나였다.<sup>54</sup> 북베트남정부가 협상에 응한 것은 'Tet 공세'와 관련이 있다. 북베트남은 아직 공세의 정확한 결과나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이로 인해 회담에 유리한 조건이 성립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 미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하며, 회담결과 역시 마찬가지로일 것이라 주장했다.<sup>55</sup> 이후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증진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중국은 미국과의 교류에 앞서 북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켰으나, 북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유도하려고 일부러 북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킨다고 판단했다.<sup>56</sup> 베트남은 1970년대 초,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통일지원이 감소되었고 마지막 통일단계에서는 지원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sup>57</sup> 실제로 중국은 베트남의 통일문제에 대해 소홀했고, 중국이 추구한 장기적 노선은 '2개의 베트남'이 공존하는 현상유지정책이었다.<sup>58</sup> 평화 협정에 직접 참여한 미국의 키신저 외무장관이 쓴 <베트남전쟁 종결>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 접촉한 목적은 베트남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으나 북베트남지도자들의 통일의지는 늘 강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베트남 철수는 중국-미국 사이의 협의결과가 아니라 베트남-미국 간의 협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sup>59</sup>

1973년 1월 평화협정 이후, 중국은 베트남 북쪽의 국경 지역에서 영토 침입과 같은 도발을 통해 베트남의 통일의지를 저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미군의 재개입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베트남의 사이공 해방 및 통일에도 찬성하지 않았다.<sup>60</sup> 따라서 베트남 통일에 대한 중국의 '원한'은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표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61</sup> 결론적으로, 베트남 전쟁 말기와 베트남 통일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베트남 전쟁은 베

부, 40-45쪽]

<sup>54</sup> Qiang Zhai, "China's Crucial Role", McMahon, Robert J., *Major Problems in the History of the Vietnam War*, Houghton Mifflin College 2007, p.505.

<sup>55</sup>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406쪽.

<sup>56</sup> 『Sách trắng 1979』, pp.45-55. [『백서 1979』, 45-55쪽]

<sup>57</sup> Nguyễn Thị Mai Hoa, 「Các nước XHCN ủng hộ Việt Nam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 -1975) 」, (NXB Chính trị QG, 2000), p.337. [응웬 티 마이 화, 「베트남항미전쟁에 있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1954-1975)」, (베트남: 국가정치출판사, 2000), 337쪽.]

<sup>58</sup> 중국이 '2개의 베트남'이 공존하는 정책을 유지한 이유는 유인선 저자의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라는 책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책의 중·베 관계의 특징을 다룬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이 베트남정책에 있어 위와 같은 정책을 편 이유는 첫째,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둘째, 중국은 인도차이나 지역 내 '골목대장'이었던 베트남의 힘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sup>59</sup> Henry Kissinger, *ENDING THE VIETNAM WAR: A History of America's Involvement in and Extrication From the Vietnam War*, Simon & Schuster, (New York: 2003), 참조.

<sup>60</sup> Nguyễn Thanh Lê, 「Một tiêu điểm của cuộc chiến tranh tư tưởng phân cách mạng」, NXB Sự thật, 1983, p.49. [응웬 타인 레, 「반혁명전쟁의 초점」, (베트남: 진실출판사, 1983), 49쪽.]

<sup>61</sup> 『Sách trắng 1979』, pp.65-70. [『백서 1979』, 65-70쪽.]

트남인들에 의해 종식되었고 통일 역시 중국의 지원에 의지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1970년대 말에는 북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긴 반면, 북한-중국 관계가 개선되었다.<sup>62</sup> 구체적으로, 1960년대 들어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1960년대 중후반(1964~1968년)에는 중국과 심각한 정치·외교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북한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폭력주의를 비판했으며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조정이 추진되었다. 1969년 9월 10일 호찌민의 장례식에 참석한 최용건<sup>63</sup>이 베이징에 들러 저우 언라이와 회견하며 북중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원한다는 김일성의 의견을 전했다. 중국 측은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0주년 국경절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최용건을 마오쩌둥, 름바오 등과 함께 텐안먼 단상에 서도록 예우했다. 1970년 3월 김일성은 정식으로 저우 언라이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이는 4월 5~7일에 성사되었다. 7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공산당 최고위급 인사의 북한 방문으로 북·중관계는 회복되었다.<sup>64</sup> 미·중 간의 대탕뜨로 특징지어지는 1970년대 초에 북·중관계는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979년 미·중 관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중국의 정치·외교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1970년대 후반 계속하여 중국의 반패권주의와 자력갱생에 호의를 보이는 등 양국 관계를 돈독히 했다.<sup>65</sup>

197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느슨해진 이유도 중·베 관계 악화와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초 중국정부는 미국정부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베트남 문제를 고심했고, 베트남의 통일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줄였다. 북한의 베트남 지원이 중단되었던 시기 역시 1973년이었던다는 점에서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북한이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살필 때도 중국은 간과할 수 없는 변수였다. 북한은 1973년부터 외견상 친중국적인 자세를 애써 드러내 보이면서 중국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했다.<sup>66</sup> 북한은 당시 중국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적대정책이 최고점에 이른 소위 1979년 ‘국경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최고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sup>67</sup> (베트남정부에 따르면,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에 있

<sup>62</sup>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sup>63</sup> 북한의 정치가. 만주에서 항일운동 및 공산 빨치산운동에 참가했다. 광복 후 귀국하여 1955년에는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 재판장으로서 박헌영 숙청사건을 담당했다. 요직을 두루 거쳐 1972년에는 국가 부주석 겸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sup>64</sup>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154-175 쪽.

<sup>65</sup>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대외관계』, (파주: 한울, 2007), 259-260 쪽.

<sup>66</sup> 김태운, 『북한의 한반도 주변 대4강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156쪽.

<sup>67</sup> “Bổ sung Tình hình tổng quát về Quan hệ Kinh tế, Kỹ thuật-Khoa học giữa Việt Nam -CHDCND TT 1973-1979”. Hồ sơ 9235, Mục lục 3, Fond PTT, TTLTQG III [Supplementary Brief on the Eco

어 1979년 양국의 교역금액이 제일 적었던 이유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교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베트남 인민들의 힘으로 종식되었고, 베트남 통일이 입증한 사회주의의 승리도 북·중·베 간 사회주의를 더 단결시키지는 않았다. 여기에 더해 김일성이 베트남과 같은 무력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기존의 사실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은 1970년대 베트남 통일문제에 있어 줄곧 '2개의 베트남' 정책을 견지했듯, 한반도에서도 장기적으로 '2개의 조선'이 지속하고 공존하는 현상유지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김일성의 중국 방문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 III. 맺음말

결론적으로,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 전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라는 점이다. 한편, 베트남전쟁, 북·베 관계,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를 준 여러가지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1950년대에는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공동 연대 관계가 수립되었다. 1951년, 베트남에서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진행되고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아직 치열했던 시기에 베트남 민족통일전선 전국위원회 부주석 호앙 꾸옥 비엠휴는 북한에 입국했고, 38선까지 시찰했다. 호앙 꾸옥 비엠휴는 북한 방문에 대한 보고와 같은 자료를 통해 1950년대 북베트남·북한관계의 시작이 공동 연대 의식에서 출발한 반(反)제국주의 의식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양국은 문화교류를 하면서 사회주의 의식을 점차 공고히 하였다. 1950년대 말 김일성이 북베트남의 하노이에 방문했고 그 이후 북·베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1950년대의 연대의식은 1960년대 북한·북베트남 관계의 기초로 작용했다. 1960년대의 북한·북한 관계는 “밀월 관계”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상황에 따라 두 국가의 관계가 진전되었는데, 베트남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남한의 베트남 파병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965년부터 북한은 북베트남에 대한 무상지원을 시작했고 북한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북한은 남한 병사들을 설득하는 심리전과 공작전문가들을 베트남에 파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한반도에서 북한은 1960년대 후반 ‘남조선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한 내에서 “혁명운동”을 양성하고, 베트남전쟁방식과 유사한 게릴라투쟁을 일으키는 전략을 수립했다.



1960년대 후반 북베트남과 북한 관계가 제일 긴밀할 때에는 베트남 전쟁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1960년대 말에 나타난 푸에블로호 사건, 1.21사태와 같은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정책은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및 베트남 전쟁의 방식이었던 게릴라 투쟁의 연장선이었다. 1975년 베트남전 종결시기 북한의 무력통일 주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위치했다. 그런데 1960년대 말 남한의 베트남파병은 중단되었고, 1970년대 들어와서 남한군의 철수와 함께 북베트남과 북한의 관계는 느슨해졌다. 북한정부는 베트남의 통일결과를 보고 오히려 베트남의 무력통일방식을 한반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실감했고, 사실상 남한에 대한 공격적 통일정책을 포기했다. 이는 남한과 남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북한과 북베트남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보유 역량, 능력이 달랐던 원인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197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가 느슨해진 이유도 중·베 관계 악화와 관련이 있었다. 1970년대 초 중국정부는 미국정부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베트남 문제를 고심했고, 베트남의 통일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줄였다. 북한의 베트남 지원이 중단되었던 시기 역시 1973년이었던 점에 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를 살필 때도 중국은 간과할 수 없는 변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베트남전이 북한의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무력 통일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역에서 다양한 통일외교정책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북한정부는 베트남전쟁 종결에서 나타난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추구하는 제스처, 또한 비동맹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등 외교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실제적인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정부가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외부적 요인이나 시기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북한정부는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를 요구했으나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조건 또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마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지도부는 1970년 중반에 통일보다는 한반도에서 '분단상태 유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Báo Nhân dân』, 『Báo Quân đội nhân dân』 (신문)

『Sự thật 30 năm Quan hệ Việt-Trung (Sách trắng 1979)』, Bộ ngoại giao CHXHCNVN.

(『베트남-중국 30년 관계의 진실 (백서 1979)』, 베트남 외교부)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Vietnam National Archive 3).

『로동신문』

- 남북조절위원회 (1975), 『남북대화 백서』 .
- 조선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6』 ; 조선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3』
- China-North Korea Relations*, Document Collection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NKIDP,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 Inter-Korean Relations*, Document Collections, NKIDP,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 Henry Kissinger, *ENDING THE VIETNAM WAR: A History of America's Involvement in and Extrication From the Vietnam War*, Simon & Schuster, New York: 2003.
- Qiang Zhai, "China Role", McMahon, Robert J., *Major Problems in the History of the Vietnam War*, Houghton Mifflin College, 2007.
- Hoàng Quốc Việt, Hoài Thanh, 『Một tháng ở Triều Tiên』 , - H. : Ủy ban bảo vệ hoà bình thế giới của Việt Nam xb, 1952. [호양꾸옥비엣, 화이타인, 『북조선에 있는 한 달』 , 베트남: 세계평화보호위원회 출판, 1952.]
- Nguyễn Thị Mai Hoa, 『Các nước XHCN ủng hộ Việt Nam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 NXB Chính trị QG, 2000. [응웬 티 마이 화, 『베트남항미전쟁에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1954-1975)』 , 베트남: 국가정치출판사, 2000.]
- 『Lịch sử kháng chiến chống Mỹ, cứu nước, 1954-1975, Tập V: tổng tiến công và nổi dậy 1968』 , Viện nghiên cứu lịch sử,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01.[베트남군사역사연구원, 『항미조국 통일전쟁역사, 1954-1975, 제5부: 1968년 총공격 및 봉기』 , 베트남: 국가정치 출판사, 2001.]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 서울: 한울, 2006.
- 김태운, 『북한의 한반도 주변 대4강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 도미엔, 「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 ,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06.30.
-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 남기정 옮김, 창비, 2014.
- 유용태·박진우·박태균,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2』 , 파주: 창비, 2010.
-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 파주: 창비, 2012.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 서울: 이산, 2002.
- 윤대영, 「 1950년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87 (2013).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 서울: 일신사, 1997.
-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 서울: 한울, 2005.
- 조진구, 「중소대립-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68」 / 亞細亞研究: Vol.46 No.4, 2003.
-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 파주: 창비, 2012.